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9. 8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,6호기 건설의
원활한 추진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
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

(조선일보 8.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현재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 협상이 진행 중으로, 시공사측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하도급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◇ 산업부와 한수원은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◇ 8월 5일 조선일보 <신고리원전 5·6기, 또 멈출 위기… “주52시간 임금 부담 책임져라” 하도급업체들 ‘공사중단’ 예고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 내용

- ‘주 52시간 근무제’ 시행에 따라, 신고리 5·6호기 시공 하도급 업체들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최근 동 하도급업체들은 관련 기관 등에 “임금보전금을 공동 부담해 달라”는 호소문을 보냈으며, 8.5일까지 근로자 임금 보전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임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현재 시공사들(삼성물산, 두중, 한화)과 하도급 업체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,
 - 시공사측은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.
- 산업부와 한수원 역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※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 / 송정훈 사무관(044-203-5326)
이수연 사무관(044-203-5322)